

일본의 동남아 관련 지역연구소 탐방: 교토대학교와 국립민족학박물관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남아연구분과

2002년 10월 22일 일본의 가을 하늘은 한국의 가을 하늘만큼이나 드높고 푸르렀다. 초가을 은은하게 물든 단풍과 나즈막한 산으로 둘러쳐진 교토(京都: Kyoto)는 마치 한국의 경주(慶州)를 연상시킬 만큼 고색창연한 정취를 담고 있었으며, 복잡한 대도시의 위용을 자랑하는 오사카(大阪: Osaka)는 도시인들의 혼잡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일본 특유의 안정되고 정돈된 분위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사실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에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지니고 같은 지역을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을 만났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무척이나 반갑고 즐거운 일이었다.

지난 2002년 10월 22일부터 26일 사이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남아연구분과의 일원인 이한우·이동윤·이요한 박사 3인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지역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일본의 동남아 지역 연구자들과 양국간 학술 교류 및 협력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일본의 교토와 오사카를 방문하였다. 일본에서 동남아 지역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교토대학(京都大學: Kyoto University)의 동남아시아연구센터(CSEAS: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와 오사카에 위치한 국립민족학박물관(國立民族學博物館: National Museum of Ethnology)의 지역연구기획교류센터(JCAS: Japan Center for Area

Studies)가 우리 일행의 주요 방문지였으며, 그 밖에도 한국학을 비롯하여 지역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교토 리츠메이칸대학(立命館大學: Ritsumeikan University)의 국제관계학부 또한 방문할 계획이었다. 당초 이들 연구기관과 대학교의 방문은 일본에서 동남아 지역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 연구자들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이들과 동남아 지역연구에 관한 정보 교환 및 우호를 증진시킨다는 소박한 목적을 담고 있었으나, 일본측 연구자들의 공식적인 영접과 환대로 뜻밖의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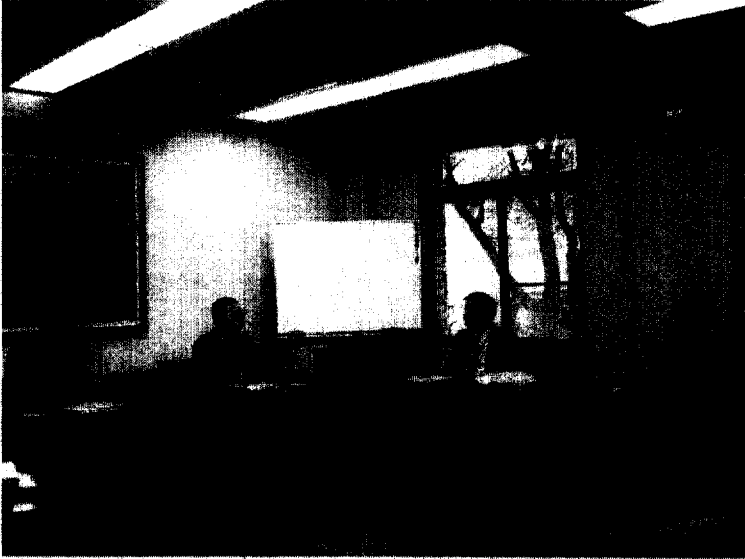
1. 교토대학 동남아시아연구센터 방문

2002년 10월 23일 방문한 교토대학은 한국의 비좁은 대학 캠퍼스와 달리 넓은 지역에 각 단과대학 별로 크고 작은 부속건물과 각종 연구소들이 밀집해 있는 거대한 대학촌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캠퍼스 곳곳에 조성된 녹지공간은 초가을의 풋풋한 정취를 물씬 풍겨주었다. 대학 본부에서 받은 교내 안내지도를 보며 물어 물어 힘들게 찾아가던 동남아시아연구센터에서는 다나카 코지(Tanaka Koji) 소장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으며, 그 곳 센터 소속의 연구자들과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물론 서울에서 출발하기 이전부터 다나카 소장에게 우리 일행의 방문 목적과 일정을 통보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공식적인 회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다나카 소장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류·생태환경을 연구하는 람보(A. Terry Rambo) 교수와 동남아 대륙부 국가들의 농업발전 및 농촌개발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노(Kono Yasuyuki) 교수, 경제학을 전공하며 동남아 경제개발을 폭넓게 연구하고 있는 아베(Abe Shigeyuki) 교수, 그리고 필리핀 출신으로서 필리핀 정치과정을 강의하는 아비날레스(Patricio Nunez Abinales) 박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

의에서 우리 일행은 교토대학 동남아시아연구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연구시설과 이들이 진행시켜 온 연구프로그램, 그리고 그들의 연구성과와 업적 등을 간략하게 소개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양측 연구자들의 개별적인 연구 영역과 관심분야를 함께 얘기하면서 동남아 지역연구에 관한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사진 1〉 교토대학 동남아시아연구센터 방문회의 모습



* 좌측으로부터 한국측의 황인원 박사, 이한우 박사, 일본측의 다나카 소장, 람보 교수 등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측 참석자들은 한국의 동남아 지역 연구 현황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교토대학 동남아시아연구센터는 1965년 창립된 이래 현재까지 일본의 동남아 지역연구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자들과 연구업적을 배출하였다고 한다. 크게 세 개의 부속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연구센터는 동남아 지역연구를 수행하는 학자 및 연구자들의 연구실이 배치되어 있는 연구관과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연구대학원(ASAFAS: Graduate

School of Asian and African Area Studies)을 통하여 지역연구 교육과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행정관,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서적들을 보관하고 분류해 놓은 도서관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연구관을 사용하는 연구부의 경우 지역동태 분과와 인류·생태 분과, 사회·문화 분과, 정치·경제 분과 등 동남아 지역연구를 담당하는 네 개의 상설연구 분과와 국내외 방문연구원들이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각종 연구를 수행하는 지역연구 분과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지역연구 분과의 경우 동남아 지역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초빙연구원제도'와 '연구지원금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일본내 동남아 지역연구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각종 학문분야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와 국제화를 강화하고 있었다.

도서관의 경우 10만여 권 이상의 동남아시아 관련 자료와 서적들이 보관되어 있는 도서실과 동남아시아연구센터에서 연구된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출판하고 동남아시아연구센터의 지역연구 학술지인 『東南アジア研究(Southeast Asian Studies)』를 발간하는 편집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관련 각종 자료들을 분류·정리하는 자료처리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동남아 지역연구를 전공한 도서관 사서인 기타무라(Kitamura Yumi) 박사로부터 안내를 받은 도서실의 경우 일본어와 영문 자료·서적들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현지어, 기타 외국어 등으로 기록된 수많은 동남아 관련 자료들이 포괄적으로 수집되어 있어 자료수집과 보관에 있어서도 동남아시아연구센터가 세계적인 수준임을 잘 알 수 있었다.

교육·행정관은 동남아시아연구센터 및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연구대학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서무과와 예산운영을 담당하는 회계과, 대학원 학생업무를 담당하는 교무과, 그리고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학술교류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대학원 학생들이 수업하는 강의동(講義棟)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1998년 신설된 아시아·아프

리카 지역연구대학원의 경우 5년 과정의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두고 장기적인 현지조사 지원과 더불어 보다 체계적인 지역연구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일본내 동남아 지역연구의 산실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밖에도 동남아시아연구센터는 태국 방콕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현지 연락사무소(liason office)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동남아 각지에서 현지조사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인 연구자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락망과 협조관계를 형성해 놓고 있었으며, 동남아 지역을 연구하는 국내의 학자들을 초빙하여 각종 장·단기 연구지원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남아 지역연구에 관한 국제적인 학술교류에도 힘쓰고 있었다.

한편 이날 회의의 가장 중요한 관심 주제는 한·일 양국간 동남아 지역연구자들 사이의 유기적인 학술 교류와 협력관계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일본측 연구자들은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 현황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한·일 양국간 보다 체계적인 학술교류와 양국간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 일행들 또한 동남아 지역연구에 대한 일본의 열성과 체계적인 연구 현황에 대하여 크게 고무되었으며, 그들이 강조하는 동남아 지역연구에 대한 한·일 양국간 학술교류 및 협력방안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사실상 우리가 동남아 현지조사과정에서 접한 개개인의 일본인 연구자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작고 왜소한 존재였으나, 교토대학의 동남아시아연구센터는 앞으로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가 지향해야 할 건설적인 모델을 제시할 만큼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특히 그들이 교토대학 동남아시아연구센터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지조사에 철저하게 바탕을 둔 심층적인 공동연구와 국제적 학술교류, 동남아 관련 자료와 서적들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보관, 그리고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연구대학원을 통한 전문적인 지역연구 교육과 후진 양성 등은 앞으로 한국의 동남아지역연구가 추진해야 할 모범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듯 하였다.

2. 교토 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 방문

2002년 10월 23일 오후 황인원 박사의 안내로 도착한 리츠메이칸 대학은 교토 북서쪽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1900년 건립되었다는 학교의 연혁 소개와 달리 현대식 건물과 아름다운 광장을 지닌 작고 아담한 학교였다. 특히 리츠메이칸대학은 주변에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인 킨가쿠지(金閣寺)가 있고 료안지(龍安寺), 난나지(仁和寺) 등으로 이어지는 2.5km 정도의 거리가 교토의 명물거리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일본적인 정서와 아름다운 풍치를 한껏 발산하고 있는 곳이었다. 특히 리츠메이칸대학은 학교 규모는 작지만, 주변의 다른 여러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학점교류를 실시하고 국제관계학부 등 일부 학과들을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교토 지역의 명문대학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리츠메이칸대학의 국제관계학부는 마침 우리 일행 중 한 명인 황인원 박사가 그 곳의 초빙교수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여러 교수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국제관계학부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가르치는 나카무라(中村福台) 교수와 싱가포르 출신으로서 동남아시아 국제관계를 가르치는 쉬푼킴(徐本欽: Shee Poon-Kim) 초빙 교수 등을 만나 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랑거리와 학생 교육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었으며, 국제관계학과 한 학과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관계학부 건물의 이곳 저곳을 자세히 구경할 수 있었다. 특히 리츠메이칸대학에서 우리 일행을 놀라게 만든 곳은 국제관계학부 건물의 5층 자료실과 각 방마다 시청각교육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강의실이었다. 도서실을 겸한 5층 자료실에는 한국 대학교의 중앙도서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각종 저널과 현지어·영문 신문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학생들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들 자료들을 열람하며 학습에 전념할 수 있었다. 또한 각 강의실에는 방마다 최첨단 빔 프로젝터 시설과 음향기재들이 갖추어져 있어

보다 효과적인 시청각교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사진 2〉 교토 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의 혼나 박사와 함께



* 좌측 뒤로부터 혼나 박사, 황인원 박사, 이동윤 박사, 이한우 박사, 이요한 박사, 그리고 사진촬영을 함께 하자고 달려온 일본인 학생이 중앙에 있으며, 뒷편에 보이는 건물이 리츠메이칸대학의 국제관계학부 건물이다.

자료조사 및 복사 관계로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교토대학 동남아시아연구센터에 머물렀던 이한우·이요한 박사가 합류한 우리 일행은 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에서 동남아 정치를 강의하며 인도네시아 군부정치를 연구하고 있는 혼나 준(本名純: Honna Jun) 박사와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즐거운 담소를 나눌 수 있었다. 특히 혼나 박사는 같은 동남아 지역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우리 일행과 많은 부분에서 의식을 공유했으며, 동남아 현지조사과정에서 각자가 겪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 등을 얘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혼나 박사는 동남아시아를 연구하는 한국 학자들과 일본 학자들 사이의 활발한

학술교류와 공동연구의 수행을 희망하였고, 우리 일행 또한 교토대학 동남아시아연구센터에서 나눈 얘기들을 바탕으로 그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지속적인 교류와 연계활동을 기약하였다.

저녁식사 자리는 자연스럽게 술 자리로 이어져 크리스찬인 이요한 박사를 제외한 우리 일행 모두는 교토의 본토초(先斗町) 지역으로 이동하여 맥주잔을 기울이며 동남아 지역연구자로서 양국 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동연구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혼나 박사는 자신이 인도네시아 군부정치를 연구하기 위하여 현지 장성들에게 접근하여 친해지게 된 사연을 공개하였으며, 우리 일행 중 이동윤·황인원 박사는 자신들이 동남아 현지에서 어떻게 그 곳 정치인들과 인터뷰를 하고 친분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가를 얘기하였다. 무르익은 술 자리는 결국 한·일 양국간 활발한 학술교류를 위하여 양측의 젊은 학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교류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말을 맺게 되었으며, 혼나 박사와 우리 일행은 마지막으로 본토초 거리의 조그마한 라면집에서 교토식 명물라면과 맥주 한잔으로 술 자리를 파하고 훗날의 만남을 다시 기약하였다.

3.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 지역연구기획교류센터 방문

2002년 10월 25일 오사카로 이동한 우리 일행은 오사카의 중심인 돈토보리(Dontobori) 지역에 숙소를 잡은 직후 오사카 북동쪽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는 국립민족학박물관으로 발길을 재촉하였다. 국립민족학박물관은 원래 오사카 엑스포(Osaka Expo)를 개최했던 넓은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세워졌으며, 그 산하에 지역연구기획교류센터 두어 연구기관을 함께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1994년 건립 이래 국립민족학박물관 산하 지역연구기획교류센터는 세계 각 지역의 지역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학술연구들을 수행하여 왔으며, 인문·사회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지리학, 생태학, 토양학 등 지역연구에 필수적인 이학 분야의

연구들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일본내 지역연구의 명실상부한 요람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진 3〉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 지역연구기획교류센터 전경



* 사진 속에 보이는 건물은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이며, 그 뒷편에 우리 일행이 방문한 지역연구기획교류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입구에서 신분 확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들어간 지역연구기획 교류센터는 건물과 건물을 잇는 구름다리를 지나 긴 복도를 사이로 크고 작은 연구실과 사무실이 마치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복도를 지나며 풍기는 야릇한 냄새들은 이 곳 연구센터가 지역연구의 기초적인 생태학적 실험과 생물학적 연구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실질적으로 언뜻언뜻 비쳐진 몇몇 다른 연구실 내부에는 박제되어 있는 야생동물들의 모습도 간간히 발견할 수 있었다. 필리핀 지역연구를 담당하는 이시이(Ishii Masako) 박사의 안

내로 도착한 사무실에서 우리 일행은 간단한 다과와 함께 그 곳 지역연구기획교류센터의 각종 시설과 연구활동 등을 간략하게 소개받을 수 있었다.

국립민족학박물관 산하 지역연구기획교류센터는 일본내 세계 각 지역에 관한 지역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지역 역사 및 사회·문화·정치·경제 등을 포함하여 지역연구의 기초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지리·지질·생태학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지역연구가 일본 내에서 하나의 포괄적 종합학문으로 자리잡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한다. 특히 지역연구기획교류센터는 세계 각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각종 실물자료와 인쇄물, 시청각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소장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의 특정 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도 장기적인 현지조사를 통하여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장기 연구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연구기획교류센터의 각종 연구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2~3년 사이에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일반연구와 5~10년 동안 특정 주제에 따라 특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특별연구, 그리고 세계 각지의 지역연구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현황과 정세를 파악하는 기관연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프로그램은 지역연구기획교류센터 소속의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기관외·국내외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물들은 학술회의와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역연구기획교류센터의 이시이 박사 또한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기회가 된다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또한 함께 수행하고 싶다는 요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특히 그녀는 그 곳 연구센터에서 추진된 한국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연구간행물을 보여주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역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그녀의 관심 지역인

필리핀 지역연구에 대해서도 강한 애착을 표명하였다. 지역연구기획교류센터를 떠나면서 우리 일행은 차를 잡는 곳까지 배웅나온 이시이 박사과 필리핀 현지조사사 또 다른 조우를 기약하였으며, 기회가 된다면 자료수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지역연구기획교류센터를 방문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일본의 교토와 오사카 지역에 분포된 동남아 관련 지역연구기관을 탐방한 우리 일행은 비록 짧은 여행기간이었지만, 이곳저곳에서 일본의 동남아 지역연구에 관한 많은 것을 보고 접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지역연구,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역연구의 역사가 우리보다 긴 일본의 경우 보다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제는 서구 학자들 중심의 연구 경향을 뛰어 넘어 보다 아시아적인 가치와 시각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연구의 발전과 국제화를 꾀하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일본의 동남아 지역연구자들은 한국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학술적 교류와 협력은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에도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초가을 일본의 고도(古都) 교토와 제2의 대도시 오사카로의 여행은 일본인들이 자랑하는 문화유적지나 관광지만큼이나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일행에게 시사하여 주었다. 특히 동남아시아를 연구하는 지역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의 지역연구 현황은 부러움과 동경 그 자체였으며,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 한국도 어떻게 동남아 지역연구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장래 계획과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만든 좋은 경험이었다. 4박 5일 동안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일본의 동남아 관련 지역연구소 탐방은 초가을의 풍요로운 정취만큼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여행이었다.